

사학연금

2021년 8월호
제417호

사학연금 • 2021년 8월호 제417호



서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다



※ 월간 <사학연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사학연금

CONTENTS



2021년 8월호 제417호

사학연금

발행인 주명현
발행일 2021년 8월 1일(비매품)
발행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의 061)338-0363
주소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대표전화 061)338-0000
등록번호 나주 라 00010
등록일자 2006년 1월 12일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 02)786-2999
연금업무 상담 1588-4110

행복 전하기

- 04 • 마음 산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 06 • 행복 만남**
자폐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이소현 교수
- 12 • 심포 여행**
바르셀로나 최고의 건축과 예술을 만나다
스페인 여행

함께 나누기

- 18 • 문화 살롱**
슈퍼히어로의 가족 이야기
영화 <블랙 위도우>
- 20 • 취미의 발견**
양손은 자유롭게, 스타일은 옛지있게
소울비주 보잉백 만들기
- 22 • 인생 책방**
추억을 기록하는 손길 따라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 24 • 감성 공간**
여행자를 위한 행복한 안내소
문경 <산양정행소>

일상 돋보기

- 28 • TP 백일장**
 - 교과서에 대한 단상
 - 딱새의 무허가 등지
 - 살구나무 아래 오래된 집
 - 치자
- 34 • 스마트 특독**
펨펨족을 위한 모바일 주치의
반려동물 플랫폼 앱 <팻닥>
- 36 • 건강 도감**
근감소증(Sarcopenia)
걷기는 인생을 결정한다
- 38 • 장수 밥상**
무더위에 지친 입맛
시원~한 보양 요리로 잡자!



지식 더하기

- 40 • 쉬운 경제**
자녀에게 빌려준 돈도 증여로 과세될까?
- 42 • 역사 탐구**
인도에 간 한국광복군
- 44 • 생활 법률**
형제에게 빼앗긴 상속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 46 • 연금 소식**
 - 알아두면 유익한 사학연금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Q&A」
 - 정년(명예)퇴직 교직원 등의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
- 49 • 제휴정보**
- 50 • 독자 마당**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는 몸이 불편하거나,
독특한 표현법을 가진 타인을
거리를 두고 싫어합니다.

왜 일반인과 장애인 사이에는
높고 커다란 벽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쌓은 벽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두려운 마음을 만듭니다.**

더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서로가 가진 특별한 재능으로
더욱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연출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자폐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이소현 교수



자폐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아름다운 게 분명하다.
이들이 그리는 세상은 유달리 따뜻하고, 밝다. 독특한 색감으로 그린 재밌는 사물들.
심지어 사파리 맹수의 눈마저 귀엽고 친근하다. 자폐인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기업 <오티스타>를 설립한 이소현 교수를 만났다.
장애라는 편견을 이기고, 자폐인의 재능이 오롯이 인정받기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특수교육의 세계를 만난다.

☞ 교수님의 이력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_____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소현입니다. 사회적기업 <오티스타>를 설립해 자폐인 디자이너를 돕고, 디자인 작품을 판매하면서 10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_____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특수교육'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학문이었는데 고등학교 재학 당시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수교육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에 특수교육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지원했어요.

☞ 특수교육을 가르치시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일까요?

_____ 학생들에게 특수교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룹에서 특수교육



대상의 학생을 떼어놓지 말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또 하나는 특수교육 교사에 대한 자질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장애인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사는 학생의 아주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해요.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 학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좋은 특수교육 교사들은 학생의 어제와 오늘의 다른 점을 발견해요. 학생이 변화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들의 변화를 발견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죠. 저는 그런 노력이 특수교육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사회적기업 <오티스타>를 설립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___ 저는 특수교육 중에 ‘자폐’에 대해 연구했고, 자폐인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강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강점을 사회 통합적인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자폐인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서 활용하는 ‘재능 재활’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가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잖아요. 자폐인이 디자이너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사회에서도 이들을 채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폐인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이들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오티스타>를 설립했어요.

Q 자폐인 디자이너의 ‘자폐범주성장애’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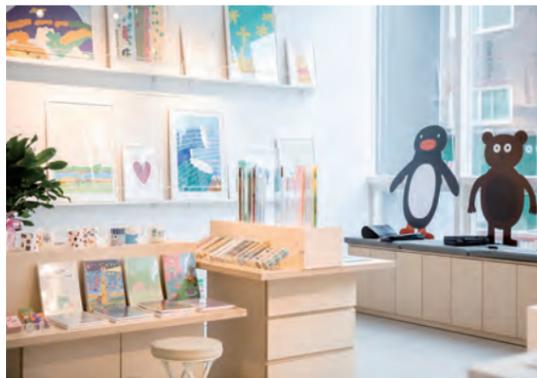
___ 증상만을 보고 ‘자폐증’이라고 부르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자폐는 사회 의사소통의 문제, 제한적이고 반복적 행동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진단됩니다. 자폐인이 보이는 사회성의 문제는 ‘맥락’을 찾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고, 다양한 측면과 넓은 범주에서 자폐가 발견되죠. 장애의 특성 자체를 ‘범주성장애’로 특정하면서 학문적으로 ‘자폐범주성장애’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자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Q <오티스타>의 인기 디자인 상품과 협업 활동이 궁금합니다.

___ 자폐인의 특성 중 하나가 숲보다 나무 한 그루, 무당벌레의 점이 몇 개인가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화려하고, 전체적으로 따뜻한 그림을 주로 그려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어릴 때부터 장애인 친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아이들은 나와 장애인을 나누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크거든요.



아마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의자 받침이 동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부터 똑같은 사진이나 풍경을 그려도 일반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독특한 그림을 그리고, 그런 작품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폐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꿈꾸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먼저 컬래버레이션 요청을 하죠. 지금까지 SK, 삼성, 롯데, LG, 다이소를 비롯해 아이소이 등 화장품 회사하고도 협업 디자인을 했어요. 최근에는 다른 사회적기업과 교구 상품을 협업해서 만들었는데 유치원 교구로 인기가 아주 많아요.

Q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두 번 나눔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___ <오티스타>를 돕고 싶다고 기부의 마음으로 같은 물건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가치가 ‘사

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고정 매출을 내는 과정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두 번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자폐인 디자이너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한 번 기부. 그리고 기부한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물품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줬으니 두 번 기부라고 생각했죠. 이런 가치에 동참하는 개인과 회사들의 참여가 이어졌고, 6년째 꾸준히 일정 금액을 모금하고 있어요. 덕분에 전국의 많은 공부방, 노인복지시설부터 우간다, 미얀마 등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저희가 만든 문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고, 편견을 갖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___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만으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인’이라는 단어





를 더 선호해요. 일반인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일반인 중에 '장애'라는 특성을 가졌다면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다양한 특성을 인정하고, 그저 직업을 구분하듯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사람들은 장애인을 우리와 다르고, 분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해요. 그런 생각이 정책이나 사회인식에 깔려있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일에 한계가 생겨요.

☞ 특수교육을 교육하며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_____ 특수교육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학생들 중에 마음이 가고 매력이 느껴지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당시 한국에는 '자폐'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며 '자

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니 그 아이들이 모두 '자폐'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또, 현장에서 떠나 연구만 하다가 <오티스타>를 시작한 후, 수십 명의 자폐인을 만나며 기뻐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 특수교육 분야를 위해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_____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어릴 때부터 장애인 친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아이들은 나와 장애인을 나누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크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이라는 학문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발달하려면 일반교육과 함께 가야 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특수교육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 교수님께서 특수교육을 연구해오신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_____ 제 신앙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특수교육을 시작하고 <오티스타>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나에게 이 일이 주어진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이 일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은 저의 소명이자 삶의 기쁨입니다.

☞ 앞으로 교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꿈을 이야기해주세요.

_____ 제가 알기로 <오티스타>는 전 세계 유일한 자폐인 디자인 브랜드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좋은 모델을 외국에서도 적용해서 그 나라의 장애인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보급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자폐인 디자이너가 실력으로 인정받고, 디자인 회사에서 자폐인 디자이너를 채용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폐인의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는 좋은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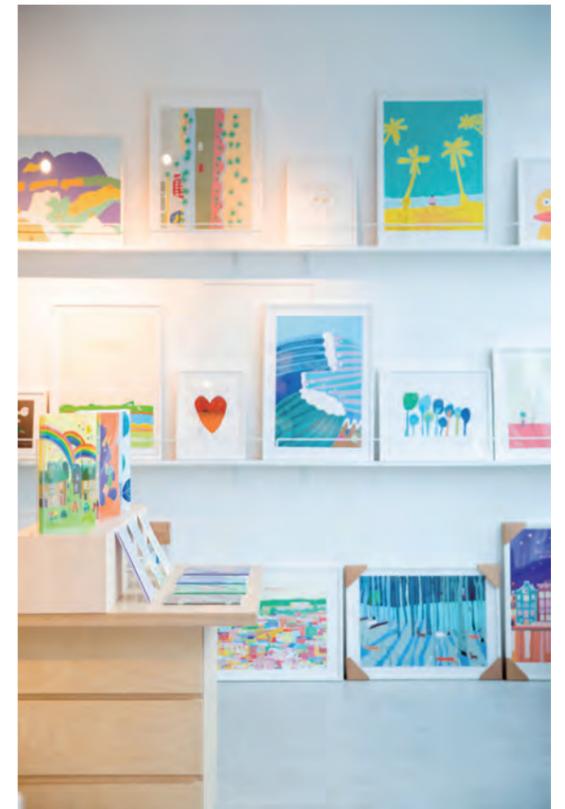
☞ 특수교육 분야 선생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_____ 저는 선생님들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선생님들! 선생님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현장에서 힘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오티스타몰 www.autistarmall.kr

행복 만남의 인터뷰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행복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 주신 사학가족에게 기념 선물로 '캐리커처 상패'를 드립니다.

바르셀로나 최고의 건축과 예술을 만나다

스페인 여행

바르셀로나는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다.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명소인 성가족 성당은 가우디가
기도와 명상을 위한 신의 집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은 곳이다.
엄청난 규모지만 계단의 작은 장식 하나까지도 소홀함이 없다.





바르셀로나의 대표 명소, 사그라다 파밀리아

바르셀로나 시내의 마요르카 거리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가족 교회’가 되는 이 성당은 가우디의 천재성이 응축된 가우디 건축의 백미로 꼽힌다. 거대한 옥수수 4개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듯 독특한 모양의 건축물로, 최고 높이가 170m나 된다. 건축양식은 입체기하학에 바탕을 둔 네오고딕식이다. 가우디의 천재성과 신앙심을 느끼게 하는 이 성당은 직선을 철저히 배제하고 곡선만으로 성당 건물을 만들어가고 있다. 성가족 성당은 1882년 프란시스코 데 파올라 델 빌라의 설계로 처음 지어지기 시작했으나 1년 반 뒤에 가우디가 작업을 넘겨받게 된다. 가우디는 자신의 대표작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온 정성을 기울여 성당 건축에 매달렸다. 그는 성가족 성당을 신의 집으로써 기도과 명상을 위해 그리고 종교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써 인간을 종교적 감정 표현과 연결시키는 모체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가우디는 건물의 정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수난, 영광으로 장식하였다. 이 정면 장식에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탑을 세우고 중앙에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대한 탑을 계획했다. 설계대로 성당이 완성될 경우 성당

- 1 2026년에 완공될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모습
- 2 구엘공원에서 보는 바르셀로나 전경
- 3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구엘공원의 도마뱀
- 4 가우디가 깨진 타일로 만든 곡선의 벤치

의 규모는 가로 150m, 세로 60m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앙 돔의 높이는 170m 정도다. 구조는 크게 3개의 파사드(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1926년까지 완성된 파사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탄생의 파사드’다. 성가족 성당 지하에는 성가족 성당의 연혁과 초기 디자인, 기술적 배경 등 성가족 성당 13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 그리고 필생의 역작인 성당의 지하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당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안토니오 가우디의 시신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가우디가 구엘 백작을 위해 지은 작은 궁전, 구엘공원

바르셀로나를 여행할 때 도시 곳곳에서 ‘가우디’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아직도 건축 중인 성가족 성당이나 카사 밀라, 카사 바트요 등 바르셀로나의 주요 랜드마크는 대부분 가우디의 작품이다. 바르셀로나를 여행할 때 가우디의 흔적을 피해 다니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다. 가우디라는 인물을 알아두면 바르셀로나를 깊이 있게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만큼 도시 곳곳에 가우디의 손길이 많이 남아 있다.

멀리 지중해와 바르셀로나 시내가 잘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구엘 공원은 가우디가 그의 경제적 후원자인 구엘 백작의 요청으로 설계한 전원 주택지다. 1900년부터 1914년까지 14년에 걸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지만 자금난이 겹치면서 몇 개의 건물과 광장, 벤치 등을 남긴 채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Parc Guell



1922년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구엘 백작 소유의 이 땅을 사들인 다음 이듬해에 공원으로 단장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소수 부유층의 전원도시 보다는 수많은 시민의 휴식처가 되었으니 오히려 그 생명력과 효용 면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얻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처음 계획했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공원으로 변한 가우디의 작품은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구엘 공원은 공원이라기보다는 어린이 테마파크에 들어온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직선이 아닌 곡선을 위주로 한 건물들, 시선을 잡는 화려하고 독특한 모자이크 장식과 타일, 위태롭게 기울어 있는 나선형의 층계 등이 자연히 어우러져 초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과자의 집처럼 생긴 건물이나 반쯤 기울어져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인공석굴의 어디쯤에서, 혹은 꾸불꾸불한 산길 어디에선가 동화 속 인물이라도 만날 것 같은 느낌이다. 곡선의 천장과 천장의 화려한 타일 조각, 광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경사진 모양은 가우디의 독창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바르셀로나 시내와 지중해가 보이는 광장의 테두리는 거대한 뱀이 꿈틀대는 형상으로 표현했는데

- 5 스페인 국립 카탈루냐 미술관의 전경
- 6 몬주익 언덕에서 바라본 전망
- 7 까사 밀라 옥상의 전시물
- 8 까사 바트요의 화려한 베란다

Parc de Montjuic



테두리를 따라 긴 의자로 만들어 공간을 활용했다. 그밖에도 다양한 장식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분수,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겸비한 공원의 명물인 벤치 등 공원 구경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스페인 대표 화가들을 만날 수 있는 몬주익 언덕

바르셀로나 바닷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몬주익 언덕. 1929년에 바르셀로나에서 만국박람회가 개최될 때 대단위 관광단지가 들어서고, 1992년 올림픽을 계기로 종합 유원지가 된 곳이다.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카탈루냐 미술관과 스페인을 대표하는 현대화가 호안 미로의 미술관이 있어 미술관 기행을 즐길 수 있다

우리들에게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로 익숙한 몬주익 언덕은 본래 '유대인의 언덕'을 의미한다. 수많은 유대인이 처형당했던 이곳은 땅을 파면 해골이 나올 정도라고 해 '눈물의 언덕'이라 불리기도 한다. 로마 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곳으로 알려진 몬주익 언덕은 1929년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1992년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바르셀로나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몬주익 언덕으로 갈 때는 스페인 광장에서 출발하여 베니스 풍의 거대한 두 탑 사이를 지나 국제박람회장으로 들어가는 코스를 주로 이용한다. 바르셀로나의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저녁시간에 몬주익 언덕을 찾으면 스페인 광장과 카탈루냐 미술관 사이에 매직분수가 있어 황홀한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화려한 춤을 추는 장관도 만날 수 있다. [t.t](#)

바르셀로나 여행 팁

가우디 건축 투어: 어린이 테마파크에 들어온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구엘 공원. 동화 속에 등장하는 도마뱀이나 과자의 집처럼 생긴 건물에서, 혹은 꾸불꾸불한 산길 어디에선가 동화 속 인물이라도 만날 것 같은 느낌이다. 또한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답게 거리 곳곳에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신시가지 중심에 있는 그라시아 거리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인 카사 밀라, 카사 바트요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라는 부제가 붙을 정도다. 살바도르 달리가 이곳 출신이고 파블로 피카소와 호안 미로가 이곳을 무대로 활약했다. 그들의 작품은 미술관에서나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가우디의 작품은 바르셀로나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바르셀로나에서만큼은 가우디가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



슈퍼히어로의 가족 이야기

블랙 위도우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개봉을 미루었던 <블랙 위도우>가 마침내 개봉했다. 블랙 위도우는 어벤저스 멤버 가운데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캐릭터로서, 수 많은 팬들이 그녀의 솔로 무비를 고대해왔다. 여전한 코로나 사태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선보인 <블랙 위도우>를 소개한다.

Black Widow



'블랙 위도우'의 정체

'블랙 위도우'는 원래 1964년 4월에 처음 등장한 마블코믹스의 캐릭터로서, 본명은 나타샤 로마노프이다. 소련의 스탈린그라드에서 태어난 나타샤는 냉전 시기, KGB 소속의 '레드룸'에 들어가 신체 개조 등을 통해 엄청난 능력을 지닌 스파이가 되어, 코드네임 블랙 위도우로 불리게 된다.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의 근원인 마블과 DC 코믹스의 캐릭터가 대개 2차 세계대전과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의 산물인 것처럼, 블랙 위도우도 그 선상에 있는 셈이다. 또 슈퍼히어로 대

부분이 부모에게 문제가 있거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샤 또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블랙 위도우는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파견되었으나 전향해 악당에서 착한 캐릭터로 변신한다.

MCU 영화로 각색된 '블랙 위도우'

2009년, 디즈니는 마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5,000명이 넘는 마블 캐릭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 원작에서 캐릭터를 가져오되 스토리는 원작을 대폭 각색하거나



언젠가 선택해야 돼.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자신으로 살지!

참고 정도만 하는 전략으로 제작되는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가 양산되었고, 대부분 엄청난 흥행 성공을 거두었다.

MCU 영화인 <블랙 위도우>도 캐릭터와 원작의 주요 설정만 가져온 결과물이다. 영화의 시작은 1995년 미국 오하이오, 알렉세이와 멜리나는 나타샤와 엘레나를 키우며 살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소련에서 레드룸을 총괄했던 드레이코프 장군이 다시 레드룸 프로젝트를 부활시키기 위해 파견한 스파이로서, 나타샤와 엘레나는 가족으로 위장하기 위해 데려온 아이들이다. 그들이 세뇌 관련 기술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을 탈출하면서, 네 사람은 빨빨이 흩어진다.

이후 어벤저스 멤버로 활동하던 블랙 위도우 나타샤(스칼렛 요한슨)는 은퇴하려고 하다가 위도우 요원이 된 엘레나(플로렌스 퓨)를 만나게 된다. 나타샤는 엘레나를 통해 자신

이 암살했던 드레이코프가 살아있으며, 레드룸을 재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레드룸을 파괴하려면, 알렉세이와 멜리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샤와 엘레나는 두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렇게 네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나타샤와 엘레나가 친자매처럼 행동하고, 네 사람이 옛날에 같이 살았던 추억을 주고받을 때, 가짜 가족은 진짜 가족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블랙 위도우>는 지루하지 않은 간격으로 슈퍼히어로 영화다운 액션을 배치하면서, 가족 멜로드라마를 활용해 원작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나타샤의 가짜 가족은 결국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의기투합한다. 슈퍼히어로 영화가 선사하는 특별한 가족 이야기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는 지금 시대를 상징하는 것 같다. [tvN](#)



블랙 위도우 Black Widow

감독 케이트 쇼틀랜드

출연 스칼렛 요한슨,
플로렌스 퓨

개봉 2021년 7월 7일

블랙 위도우의 숙적 드레이코프는 '레드룸'을 재건한 다음, 수 많은 어린이들을 납치해 세뇌를 통해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인간병기 '위도우'를 양산해낸다. 이를 알게 된 블랙 위도우는 어린 시절의 가짜 가족을 찾아서 함께 힘을 합해 '레드룸'을 파괴하려고 한다.



무더운 더위와 함께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피하고 싶은 계절, 외출할 때마다 챙기는 선글라스가 괜스레 짐으로 느껴지기 십상이다. 산뜻한 외출을 위해 선글라스, 스마트폰을 모두 수납할 수 있는 멋스럽고 실용적인 보잉백을 직접 만들어 보자.

양손은 자유롭게,
스타일은 엷지있게

소울비쥬 보잉백 만들기



한여름 외출 필수 아이템

낮 기온이 30℃에 육박하는 한여름 더위를 뚫고 외출할 때면 몸에 걸친 옷마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만큼 불쾌지수가 높다. 불쾌감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짐을 최소화해 몸을 가볍게 하고서 외출하는 게 좋다. 하지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려면 선글라스도 챙겨야 하고, 현대인들이 잠을 잘 때도 손에 쥐고 잔다는 스마트폰을 두고 나올 수는 없을 터. 이때 작은 물품을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는 미니 크로스백이 유용하다. 그래서 추천하는 제품은 '소울비쥬 보잉백 만들기' 세트. 가죽을 기반으로 한 재료를 한 땀 한 땀 손바느질 하다 보면 어느덧 완성된 가방을 손에 질 수 있다. 수작업을 통해 만든 가방이어서 의미가 더 깊다. 실용성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물론, 직접 만들어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

명품 못지않은 수제 가방

가죽원단, 금속여밈, 실, 바늘 등 총 4가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소울비쥬 보잉백 만들기' 세트는 약간의 바느질 실력만 있다면, 아니 살면서 한 번이라도 바느질을 해봤다면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만큼 제작 난이도가 낮아서 바느질 초보자라고 겁낼 필요 없다. 설명서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장인정신이 깃든 수제 가방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가죽원단은 레이저 가공으로 정확하게 재단이 돼 있고, 바느질 구멍 또한 타공된 상품이어서 그리프 등과 같은 도구 없이 만들 수 있다. 색상은 베이지, 핑크, 브라운, 그린, 네이비, 블랙 등 총 여섯 가지로, 꼭 한여름이 아니어도 계절에 맞게, 날씨에 따라 취향껏 골라 댈 수 있다. 가죽 고유의 느낌을 살려내는 것에 더해 패턴을 볼륨감 있게 제작해 선글라스, 스마트폰 외에도 카드지갑, 여권과 같은 소지품도 수납이 가능하다. 멀리 여행 갈 때, 또는 집 앞에 잠시 외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다. [▶](#)



나만의 보잉백 만들기



1

준비물 준비하기

만들기 구성품을 준비한다.



2

바느질 준비하기

바늘에 실을 꿰어준다.



3

가죽원단 바느질하기

표시된 가죽원단을 따라 바느질을 한다.



4

스트랩 연결하기

스트랩을 연결하면 보잉백이 완성된다.

Tip

고리에 다양한 아이템을 달아보자!

선글라스나 안경을 걸 수 있는 고리가 따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에어팟, 버즈와 같은 무선이어폰이나 아기자기한 키링을 걸어 개성 넘치는 색다른 멋을 낼 수 있다.

취미의 발견에 참여해주세요

'소울비쥬 보잉백 만들기'에 도전하고 싶은 분은 **8월 15일까지** 홍보실 담당자 메일로 간단한 인적사항(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10명에게 '소울비쥬 보잉백 만들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 사연 보낼 곳

사학연금 홍보실 magazine@tp.or.kr

추억을 기록하는 손길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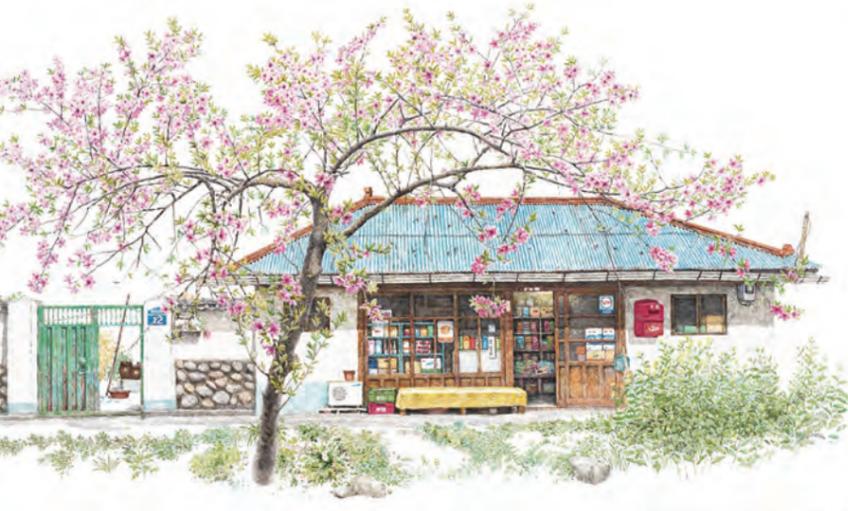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오래된 구멍가게와 주름진 주인 어르신의 편안한 미소를 마주하고, 화창한 햇살에 기대어 머뭇거리다 반갑게 웃고, 조심스레 묻고, 물건을 사고,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모든 시간이 설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것들이 사라져간다. 우리가 자주 찾아가던 작은 상회, 앵두나무가 있던 어느 골목길, 잠시 쉬어가라고 말 붙이던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추억을 따라 어릴 적 살았던 동네를 찾아가면 이제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정감이 가득했던 그 시절 이야기가 그림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섬세한 그림 따라 추억이 샘솟는다.



사람 없는 외진 길, 그래서 더 한적합니다.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나름 목적은 있되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됩니다. 길 위에서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근대화를 열망하던 시대의 반영인 듯, 서울 신영동 상명대 맞은편 세검정삼거리에 정겨운 '근대화수퍼'가 있습니다. 제게는 학창시절 추억이 쌓인 곳이기도 합니다.

밥은 먹었는지, 다음에 오면 집에서 자고 가라고 멀리서 찾아온 낯선 손님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아주머니의 말씀이 더할 나위 없이 살가웠습니다. 잘 가라며 제 손을 맞잡은 투박한 손끝에선 강하고 단단한 삶이 전해졌습니다.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글 | 그림 이미경
출판 남해의 봄날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을 통해 20년 동안 작업한 구멍가게 그림을 소개했던 이미경 작가가 3년 만에 신작을 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다시 구멍가게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만난 다정한 풍경들을 풍성하게 담았다. 이미경 작가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림 사이사이, 사람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읽다 보면 어느새 눈과 마음이 맑아진다. [t](#)

Sanyang Jeonhyeungso

여행자를 위한 행복한 안내소

문경 <산양정행소>

막걸리 한 병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오가던 문경의 한 양조장의 역사는 길다. 문경의 양조장은 큰 성황을 이루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고, 세월이 지나며 막걸리 생산을 멈췄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공간이 어느 날 <산양정행소>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문경으로 여행 온 사람들을 위한 안내소로 변신해 카페와 소품숍을 운영하고, 자전거도 대여해준다.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산양정행소>로 떠났다.



1

여행자의 쉼터로 변신한 옛 양조장

조선 시대 중기 이전부터 산양의 장터였던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은 일제강점기에 광산개발로 번성했던 곳이다. 이후 가축시장이 확대되면서 또 한 번의 성황을 이뤘다. 산양양조장은 1944년 건축돼 일식 목조건물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1960~1980년대 문경의 석탄산업 부흥에 힘입어 막걸리를 활발하게 생산했다. 1980년대에는 한 달에 200말 씩 막걸리를 주조하기도 하고, 12개의 양조장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폐광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1998년 막걸리 생산이 멈췄고 산양양조장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역사적 가치는 있으나 활용이 곤란했던 70년이 넘는 산양양조장 건물은 도원우 리플레 이스 대표와 건축 전문가의 도움으로 복합문화공간



2

1 문경 <산양정행소> 전경

2 길고양이가 좋아하는 산양정행소의 간판

3 야외에서 즐기는 카페테리아와 언제나 대여 가능한 자전거



3



산양정행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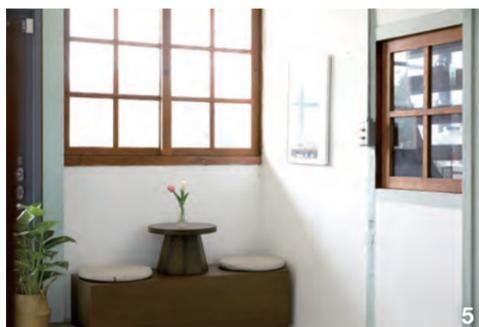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불암2길 14-5

으로 변화하게 된다. 세월의 흔적을 살리기 위해 오래된 기둥은 썩은 밑동만 잘라내고 새 기둥을 붙였다. 옛 양조장이 가지고 있던 내부의 큰 공간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천정은 트러스트 구조물을 노출시켜 설계했다. 산양정행소는 '구조물을 재건축하고,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21년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경 산양의 분위기를 담은 사랑방

넓은 들판에 문을 연 산양정행소는 경상북도 산업유산이자 인기많은 레트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양정행소의 이름에는 여행안내소의 뜻을 담은 정행소를 붙여 '문경 산양면의 여행안내소' 역할을

- 4 옛 양조장 모습을 전시한 모습
- 5 사랑방처럼 꾸민 카페 공간
- 6 더운 여름에 마시기 좋은 커피
- 7 트러스트 구조를 활용한 산양정행소의 내부 모습
- 8 다양한 소품을 판매하는 작은 소품샵



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곳은 카페와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고, 소품과 기념품도 판매한다. 또한, 2020년 여름부터 시작한 자전거 대여 서비스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자전거 대여는 산양정행소 소품샵 카운터에서 진행된다.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대여료는 1인 기준 2시간에 4,000원이다. 산양정행소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신 여행자들은 직원에게 주변 산책로를 소개받을 수 있다. 마침 자전거를 대여했다면 문경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따라 자전거 산책을 떠날 수 있다. 도시의 소음에 지치고, 근심과 걱정으로 숨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제격이다. 계절의 분위기를 따라 피고 지는 들꽃과 조용한 시골길을 걷고, 자전거로 달리는 것만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짧은 휴가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문경 산양정행소에서 코로나19 걱정 없이 가장 안전한 휴식을 경험하길 추천한다. 햇살이 가득한 자연을 온전히 느끼는 것만으로 당신의 지쳐있던 마음에 행복한 기운이 가득해질 것이다. [it](#)

교 과 서 에 대 한 단 상

 김환희 강릉문성고등학교 재직



오늘 문득 서재를 정리하다 책갈피에 끼워진 빛바랜 나뭇잎 여러 장을 발견하였다. 그 옛날 선생님이 나에게 써 준 운동주의 <서시>였다. 그 당시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운동주의 <서시>를 나뭇잎 여러 장 위에 붓펜으로 선생님께서 써 주신 것들이었다. 문득 그 나뭇잎 위로 선생님의 얼굴과 추억들이 아스라이 비추어졌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다. 지지리도 못살았던 우리 집은 아버지의 적은 봉급으로 하루 세 끼를 간신히 해결할 정도였다. 더욱이 우리 집은 형제들이 많아 그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는 듯했다. 새 옷 한 벌을 사면 닳을 때까지 입어야 했고, 특히 막내인 내가 형들이 입었던 옷을 물려 입어야 하는 일은 당연했다.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았지만, 워낙 없는 살림인지라 내 투정은 부모님에게 있어 의미 없는 아우성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부모님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적지 않게 도움을 준 적도 있었다. 다름 아닌 교과서였다. 그때 그 당시에는 모든 교과서가 검정교과서였고 몇 년 동안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연년생이 많은 자식을 둔 우리 부모님에게 특특한 효자 노릇을 해주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항상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그 불만은 막내인 나에게 있어서 극에 달했다. 매년 형들이 썼던 헌책들을 물려받을 때마다 불만을 토로하면 언제나 부모님은 ‘내년에는 꼭...’이라는 말로 불만을 잠재우곤 하셨다. 나이 오십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지켜졌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다.

12월에 접어들자, 고등학교 입시를 코앞에 두고 친구들은 제각기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내가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있었다. 기존에 출제된 문제집으로 마무리를 다져나가는 친구들이었다. 가끔은 그 친구들에게 다가

가 문제집을 빌리려고 기웃거리 보기도 하였으나 빈번히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북받쳐 올라오는 눈물을 친구들과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방과 후, 나의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담임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조용히 부르셨다. 사실 중학교 때의 나의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선생님 또한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컸다.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였다. 사실 지금까지 형들로부터 물려받은 책들은 어느 곳 하나 온전한 데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책은 활자(活字)가 지워져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볼 정도였고 심지어 케케묵은 곰팡이 냄새까지 나는 책들도 있었다. 그래서 늘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교과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어쩔 땐 헌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친구들이 눈치라도 챌까 봐 고민하다가 밤늦도록 책 표지를 쓴 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새 교과서가 그 누구의 손때가 묻지 않은 상태로 내 앞에 있지 않은가? 그때의 가슴 벅찬 순간을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너무 놀라 나의 시선은 한참을 교과서에 집중되었다. 나의 이런 모습에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의 손을 덥석 잡으셨다.

“환희야, 그렇게도 좋으니?”

부지불식중에 나는 큰소리로 대답을 했다.

“예, 선생님! 그런데...”

“그래, 어느 날 우연히 너의 교과서를 볼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은 내용까지 모두 필기가 되어 있더구나. 미심쩍어 다른 교과서까지 훑어보니 모든 교과서가 다 그렇더구나.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너에게 줄 책들을 구해 보았단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선생님은 우리 집 가정 형편과 내가 형들로부터 물려받은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다. 그

리고 언제나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나는 마치 큰상을 받은 것처럼 교과서를 가슴에 꼭 끼안고 종종걸음으로 교무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운동장을 향해서 큰소리로 ‘야호!’를 외쳤다. 그때 그 순간의 환희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마음 한구석에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나의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날처럼 기분이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집에 도착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교과서를 펼쳐 보았다. 그런데 나를 더욱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선생님께서 가을에 주워서 말린 나뭇잎 위에 붓펜으로 용기와 격려의 글들을 적어 그것들을 교과서의 책갈피에 끼워두신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글은 평소에 내가 즐겨 암송했던 운동주의 <서시>였다.

그날 밤, 나는 선생님께서 써 주신 글들을 읽고 또 읽었다. 나이가 든 지금도 그 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속의 빛이 되어 큰 위안과 힘이 되어주고 있다. 어찌면 지금 내가 교사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인생의 좌표를 그어준 선생님의 말씀과 그 교과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본다. 나는 선생님께서 일러준 방법으로 새 교과서에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가며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이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거의 모든 문제가 교과서 내에서 출제되었다. 결국 나는 원하는 고등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가끔 교실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는 교과서를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아파 그 옛날 선생님과 교과서에 얽힌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 주곤 한다. 요즘 인터넷 문화에 젖어 생활하는 아이들이 교과서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는 방법의 하나로 수업 시작 5분 전에 교과서를 읽게 한다. 그리고 가끔, 학창 시절 선생님께서 내게 해 주신 것처럼 가을에 주워서 말린 나뭇잎 위에 글을 적어 아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곤 한다. 

딱새의 무허가 동지

이윤배 조선대학교 퇴임



정년 퇴임과 더불어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강원도 홍천에 아담한 전원주택을 지어 두 번째 삶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다. 홍천에서의 전원생활은 초자(初者) 귀촌인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처럼 가져다주고 있다. 그 선물 중 하나가 딱새가 우리 집 전원주택에 동지를 튼 것이다. 작년에는 15평 남짓한 창고 안에 틀었는데, 올해는 뒤뜰 가스 계량기 위에 틀었다. 모두 주인 허락 없이 제멋대로 지은 ‘무허가 건축물(?)’들이다. 그런데 작년에는 슬프게도 딱새가 새끼를 부화하지 못했다. 순전히 주인인 나의 부주의 탓이었다.

작년 늦봄, 아침마다 환기를 위해 열어 놓은 창고 안으로 새 한 쌍이 자주 들락거렸다. 전원생활이 처음인 관계로 그 이유

를 몰라 늘 무심히 지나쳤다. 그런데 창고 문이 열릴 때마다 새들이 찾아와 여전히 들락거렸다. 무슨 일인가 호기심이 발동해 혹시나 하며 새 동지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창고 구석 선반 가장자리에 작은 나무 조각과 풀로 엮인 밥그릇 모양의 작은 동지가 있고, 그 안에 푸른색을 띤 알 네 개가 놓여 있었다. 언제 동지를 틀고 알까지 낳았는지, 그 모습을 보니 신기하고 감격스럽기까지 해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날부터 이름 모를 새와의 동거가 시작됐다. 그런데 새가 워낙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아 눈만 마주쳐도 겁싸게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무슨 새인지 종류를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한가한 날, 마음먹고 한나절 동안 창고 입구를 지켜보기로 했다. 지켜본 지 한 참 지난 얼마 후, 마침 새

한 마리가 창고 밖으로 나오더니 마당 빨랫줄에 앉아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는 미리 준비해 둔 스마트폰으로 겁싸게 사진 촬영을 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 어렵사리 촬영한 사진과 똑같은 새를 찾아냈다. 바로 ‘딱새’였다.

딱새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텃새로 대부분 여름에 번식한다. 생김새는 수컷은 얼굴과 날개가 검은색이고, 머리 위는 회색이다. 날개에 흰 부분이 있고, 가슴부터 꼬리까지 갈색을 띤다. 암컷의 윗부분은 갈색이고, 아랫부분은 옅은 갈색을 띠며, 수컷과 마찬가지로 날개에 흰 부분이 있다. 몸 길이는 약 14cm 정도 되며, 암컷은 보통 5~7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흰색과 청색에 적갈색 반점이 있다.

딱새와 동거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창고 문을 여니 쥐 한 마리가 혼비백산 구석으로 숨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런데 창고 안에 이것저것 가득 쌓여 있어 쉽게 쥐를 잡기는 어려워 보였다. 특히나 막 알을 품은 딱새에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했다. 그래서 쥐를 잡을 요량으로 약국에서 쥐 잡는 끈끈이를 사 왔다. 그리고 쥐가 드나드는 창고 문 입구에 놓아두고 쥐가 잡히기를 바라며 저녁에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조금 열어 두었다.

아침에 일어나 쥐가 잡혔나 확인해보니 아뵘새, 어찌 이런 일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쥐와 새가 같이 끈끈이에 움짱달짝 못 하고 끈끈이에 붙은 채 눈만 깜박거리고 있었다. 헤어 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온몸이 끈끈이로 뒤범벅이 돼 있어 도저히 구조할 방법이 없었다. 모양으로 봐 수컷 딱새였다. 그런데 쥐는 기어 다니니 끈끈이에 붙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날아다니는 딱새가 왜 끈끈이에 붙어 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밖에 나갔다가 창고까지 날아와 잠시 쉬려고 입구에 앉았는데 공교롭게도 끈끈이 위에 앉은 게 아닌가 짐작될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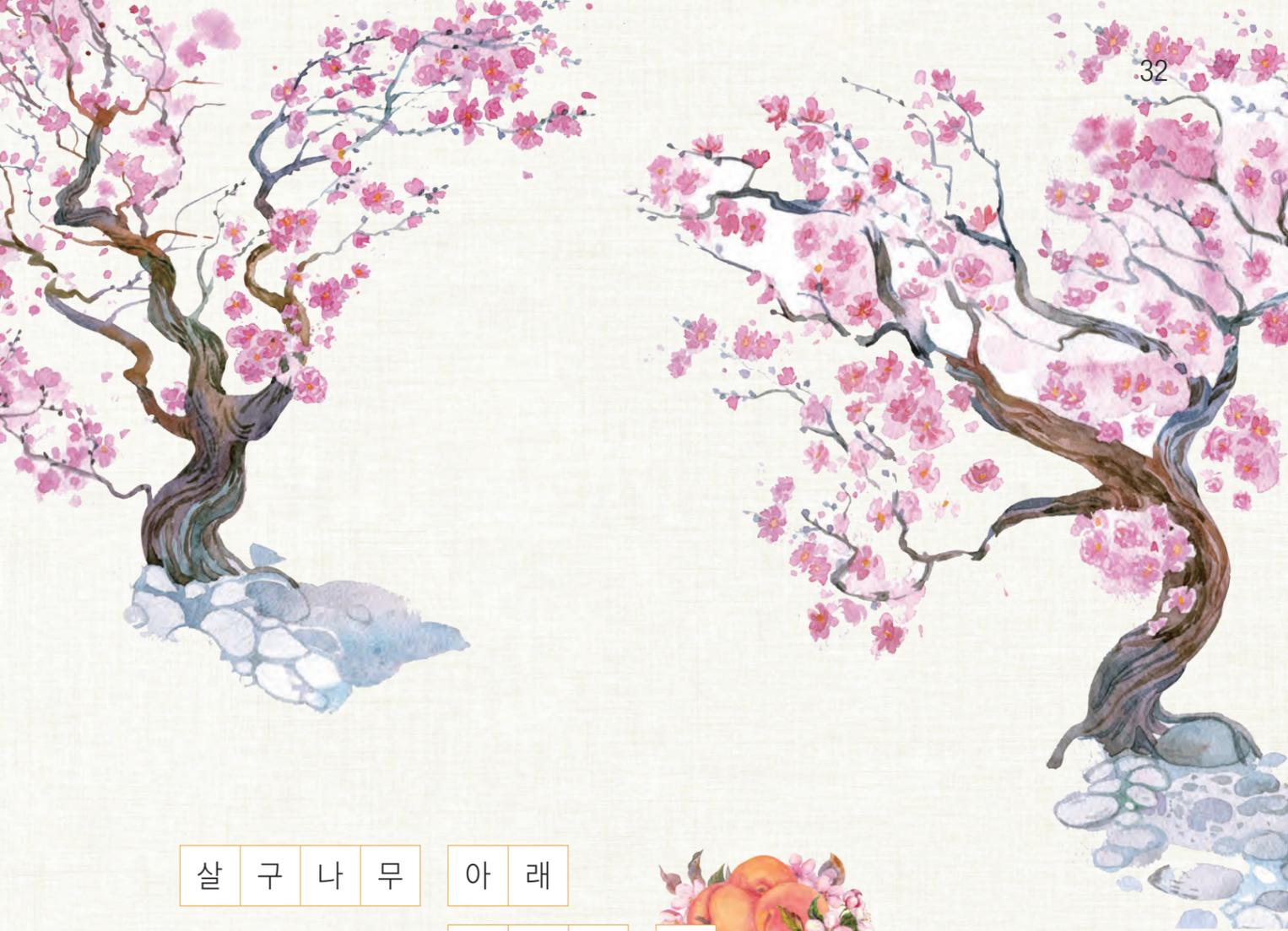
결국 쥐 잡으려다 새까지 잡은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모처럼 귀한 손님이 찾아와 동지까지 틀었는데……. 잔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 살인(殺人)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살조(殺鳥)를 했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그러나 어찌랴. 이미 옆질러진 물인 것을……. 아픈 마음을 달래며 끈끈이로 엉망진창이 된 새를 조심스럽게 거두어 화단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었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기도를 정성스럽게 올렸다.

비록 집주인 잘못 만나 수컷은 비명횡사하고 말았지만, 다행히 암컷은 무사하니 얼마 지나면 알들이 부화해 예쁜 새끼들을 볼 수 있으리라 잔뜩 기대했었다. 그런데 수컷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암컷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암컷은 결국 알들만 남겨 둔 채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비정한 모성애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으나 알을 둔 채 떠나는 암컷의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터였다. 그뿐만 아니라 수컷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생각하니 암컷 딱새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그리고 한 달여를 더 기다렸으나 암컷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부화하지 못한 알들도 수거해 수컷 곁에 고이 묻어 주었다. 나의 어리석음과 부주의로 인해 행복해야 할 딱새가 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난 꼴이 됐다. 백배사죄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내년엔 암컷 딱새가 다른 수컷 짝을 만나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지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기다린 보람도 없이 1년이 지나도 딱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창고를 정리하며 동지도 함께 치웠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도 딱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창고가 아닌, 가스 계량기 위에 새 동지를 튼 것이다. 계량기 위에 지붕도 있고 뒤뜰이라 조용해 동지를 틀기에는 창고 안보다 더 좋은 안성맞춤 장소였다. 물론 작년에 떠나버린 딱새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딱새 동지를 다시 대하고 보니 기쁘고 반가웠다. 딱새가 잠시 마실 나간 틈을 타 동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니 다섯 개의 알이 놓여 있다. 올해는 다섯 알 모두 무탈하게 부화해 훗날 날아가기를, 그리고 내년에도 다시 찾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



살 구 나 무 아 래
오 래 된 집



이상록 해광고등학교 퇴임

살구꽃 피면 지붕은 연분홍 꽃물 들고
 살구꽃 지면 마당귀에 파란 이끼 피는 집
 살강이나 시렁이나 바람의 길목에 친
 투명한 거미줄은 녹이 슬어 후줄근하고
 정지 보폭 서까래에 검댕이 주렁주렁해도
 보리밥 한 덩이 달기만 한 것은
 부뚜막 반질반질 조왕신 잘 모신 덕이라지
 노란 살구 손짓에 초승달 다가오면
 파수꾼 부엉이가 늦도록 울어대는 배고픈 밤
 오래된 집에서 오래는 살지 말자 책을 보는데
 삼십 축 백열등이 깜박깜박 먼저 켜던 집

입은 늘고 꺼져만 가는 잿빛 지붕 걷어낼 때
 선무당 도화살 탓에 애먼 살구나무 자르자
 끝까지 비늘 바짝 세우던 황갈색 지킴이
 그 덕에 무탈했다고 한마디씩 하고
 동네서 제일 크다 해도 마음은 좀 그랬지
 살구꽃 피지 않는 봄이 가고 또 가고
 없는 살림이나 아귀가 겨우 맞아가는데
 세월의 여과지에 걸리진
 심성 고운 사람들은 순서 없이 떠나가고
 오래된 집만 추억 속에 오도카니 앉아
 살구꽃처럼 하얗게 바래 지고 있지.

치 자

박근수 해성중학교 퇴임

연못으로 뛰어드는
 개구리 소리에 놀라
 풍덩- 피어나는 꽃

여름은 햇살 가득
 육모방망이로 맞아 자갈하게 부서지고
 초록 속에 굳히 자던 모시적삼 하나
 슬며시 빠져나와 뜰을 거닌다.

어릿어릿 발자국마다
 향기 고여 하얗게 출렁일 때
 초승달은 가늘게 눈웃음만 친다.



펫팜족을 위한 모바일 주치의

반려동물 플랫폼 앱

펫닥 Petdoc

실시간으로 수의사와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펫팜족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펫닥>은 현직 수의사가 직접 반려동물 증상에 따른 진료와 반려인의 사소한 궁금증을 실시간 채팅을 통해 해소해준다. 더 나아가 집 근처 동물병원 예약부터 맞춤사료 쇼핑까지, <펫닥>은 반려인들의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내 손 안에 수의사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펫팜족'이 국내에서만 1,500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을 뜻하는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은 점점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제는 양적 을 넘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며 다양한 펫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 펫닥이 인기다. 동물병원에 직접 찾아가 지 않고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의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궁금할 때 언제든지 질문하면 곧이어 현직 수의사로부터 친절 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동물에 의한, 동물을 위한

수의사가 만든 펫닥은 동물 훈련사, 미용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 들이 직원들로 구성됐다. 앱 개발자 또한 반려동물 관리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다. 업무 분야와 상관없이 전 직원이 반려동물 전문 지식이 있어 믿을 수 있다. 동물 병원과 더불어 유치원, 호텔, 미용까지 한 곳에서 전문 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i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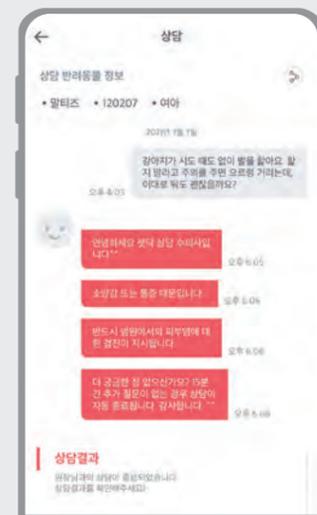
수의사 상담받기



1. 앱을 다운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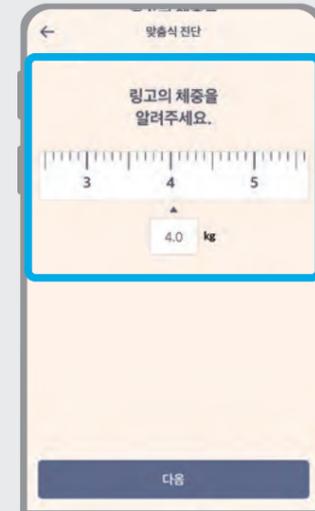


2. 앱 하단에 '상담' 탭을 누른다.



3. 상담 신청 후 수의사와 대화한다.

맞춤식 진단받기



1. 반려동물 체중과 체형을 등록한다.



2.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주재료를 선택한다.



3.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식을 구매한다.

Tip '케어' 탭에서 반려동물의 산책 횟수, 목욕 및 양치 여부 등을 매일 기록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병원 예약하기



1. 앱 하단에 '병원예약' 탭을 누른다.



2. 가까운 지역의 병원을 검색한다.



3. 병원 위치 확인 후 예약한다.

근감소증(Sarcopenia), 걷기는 인생을 결정한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왜 “걷기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강조했을까? 이 충고는 당시 사회보다 현대사회에 더 적합하다. 그의 ‘걷기는 명약’이라는 철학은 옳았다! 현대인들은 왜 많이 걸어야 할까?



건강을 원한다면 걷기부터

최근 의사에게 가장 많이 듣는 충고가 바로 “많이 걸으시고, 운동하세요”라고 한다.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갈수록 운동이나 많이 걷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몸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 별 소용없게 된다. 몸이 망가지면 그 몸은 짐이 되고, 몸이 건강하면 이득이 된다. 자신의 몸이 병상에 누워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주변인들에게 민폐가 되지만, 몸을 잘 관리하면 삶의 질도 높아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이나 재산 또는 정신조차도 건강한 몸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은퇴 후 삶의 질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질병이다. 이러한 질병은 대부분 생활습관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미리 바른 습관을 가꾸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활기찬 걷기습관이 중요하다. 활기찬 걸음걸이는 바로 근육에 있다. 특히 우리 몸의 70%에 해당하는 근육이 허반신에 몰려있어, 이것이 부실하면 건강한 걸음걸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근육의 중요성을 잊고 산다. 특히 근감소증이라는 새로운 질병에 대해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골격근량 감소로 생기는 근감소증

근감소증(사코페니아: Sarcopenia)이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격근량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근력저하와 신체기능의 저하를 말한다. 이는 골격근 질량과 기능의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질병 코드를 발표했으며,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정식 ‘질병 코드’로 분류하여 치료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질병 코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최근 각종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사람들의 약 25%가 근감소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4명 중 1명이 이 질병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도 근감소증 개선을 위해 하루 빨리 질병코드 분류와 함께 의료 체계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므로 몸의 근육도 자연스럽게 쇠약해진다. 무엇보다도 근육 조직의 변화가 신경계의 변화와 함께하여 다리 근육부터 약해진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고 아무 대책 없이 지내게 되므로 점점 ‘보행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주변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을 보면 보폭이 짧아져 시간 안에 신호등을 건너기가 힘들 정도로 ‘아장아장’ 걷는 노인도 있다. 또한 할머니들이 유모차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 이렇게 ‘보행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 때문이다.

100세 인생은 활기찬 걸음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근육이 무너지면 몸의 균형이 무너져 결국 삶의 질을 빼앗기게 된다. 둘째, 근감소증에 노출되면, 허리가 굽고, 피로를 빨리 느끼게 되며, 보행 동작이 불편하여, 심한 경우 남은 세월을 누워서 보내게 된다. 셋째, 보행의 질이 저하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더 심하면 장애를 겪거나 사망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 근감소증을 단순히 노화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고령자도 걷기와 근육을 단련해 나간다면 활기 있는 삶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필자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 중 고령층 노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젊은이들 못지 않은 그들의 ‘보행의 질’과 활기찬 걸음걸이에 놀랐다. 필자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만나는 노인들마다 그들의 비결을 알아보았다. 그들 모두는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었고, 저항성 운동도 함께 즐긴다고 대답했다. 고령층 노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골격근량 #저항성 운동

운동과 걷기가 생활화된 사람들이었다. 그렇다. 이것에 준비된 사람만이 건강하게 100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걷기도 기술이 필요하다

걷기나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자들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자연스럽게 걷기부터 시작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다. 먼저 걷기를 통해 효과를 스스로 경험하고 목표를 세워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걷기를 습관화하기 바란다. 어느 정도 자신이 활력을 얻었다고 느낄 때,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성 있는 밴드를 사용하여 저항성 운동을 시작하면 된다. 걷기와 저항성운동을 병행해 나간다면 고령층이라도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걷기의 좋은 점 중 하나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걸으면 된다. 턱을 위로 하고, 시선은 전방을 향하며, 어깨를 똑바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등은 곧게 펴고, 복부 단전 배꼽부분에 복압을 건다. 단전의 복압이란 들숨을 통하여 단전에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복압으로 엉덩이가 당겨지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나가면 된다. 이때 발은 발뒤꿈치부터 착지한 다음 앞으로 구르면서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된다.

걸음걸이가 익숙해지면 보폭이나 속도를 조절해서 하면 좋다. 팔 동작은 팔꿈치는 구부리고 몸통 가까이 유지하며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어 준다. 이 동작도 익숙해지면 팔 동작이 앞으로 향할 때 손바닥을 펴고, 뒤로 향할 때는 주먹을 쥐고 흔들면 견갑골에 자극이 가하여지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체적인 걸음걸이의 흐름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 효과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생활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많이 걷고 운동해야 한다. 허리둘레를 가늘게, 허벅지 둘레는 더 굵게, 근육은 더 많이 길러야 한다. 다리근육이 튼튼할수록 더 지치지 않고, 포도당이 더 저장되며, 노폐물도 잘 처리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걷기 바란다. 건강한 장수를 소망한다면 꾸준히 걷는 운동을 실천하자.

정리, 편집실

무더위에 지친 입맛 시원~한 보양 요리로 잡자!

초계국수(2인분 기준)

재료 및分量

닭가슴살 400g, 소면 100g, 양파 1/4개, 대파 1/2대, 마늘 5알, 청주 3T, 참치액젓 1T, 식초 3T, 조식간장 1T, 겨자 1t, 설탕 2t, 참기름 1t, 물 1L, 소금·후춧가루 약간

만드는 법

- 1 — 닭가슴살을 물, 양파, 대파, 마늘, 청주를 넣고 중간 불로 15분 삶아준다.
- 2 — 맑은 닭 육수에 조식간장, 참치액젓, 식초를 넣고, 소금 및 설탕으로 간을 한 후 차갑게 식힌다.
- 3 — 삶은 닭가슴살을 손으로 잘게 찢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밑간을 한다.
- 4 — 삶은 국수에 시원한 육수를 붓고, 준비한 닭가슴살과 취향에 따라 채소를 올려 먹는다.

여름철에 지친 체력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닭 요리와 비타민 C가 가득한 제철 채소를 먹어야 하는 법. 단백질과 비타민 B가 가득한 닭가슴살은 피로회복에 탁월하고, 제철 채소에 함유된 다량의 비타민 C와 무기질은 면역력 향상에 좋다. 오이를 비롯한 차가운 성질의 채소를 섭취하면 체내 열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다. 간단하게 요리한 시원한 보양 요리로 여름 입맛을 잡아보자.



야채 스프링롤(2인분 기준)

재료 및分量

라이스페이퍼 4장, 쌀국수 50g, 삼색 파프리카 1/4개, 깻잎 20g, 양파 1/2개, 오이 1/2개, 맛살 200g, 고수 약간

만드는 법

- 1 — 오이, 양파, 맛살, 삼색 파프리카를 채 썰고, 깻잎 또는 고수를 준비한다.
- 2 — 쌀국수를 끓는 물에 삶고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빼서 준비한다.
- 3 — 따뜻한 물에 라이스페이퍼를 적시고 취향에 따라 각 재료를 넣고 싰는다.
- 4 — 차갑게 식힌 뒤 먹기 편하게 썰어서 소스에 찍어 먹는다. 



자녀에게 빌려준 돈도 증여로 과세될까?

요즘에는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되어서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집을 살 때는 어디서 난 돈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출처를 꼼꼼히 써서 제출해야 된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할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될까?



증여가 아니라 차입거래라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세법에서는 부모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대여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반드시 증여로 본다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겠다는 의미다. 즉, 납세자가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고, 자녀가 이를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어떻게 차입거래라는 것을 입증할까? 부모 자녀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매월 차용증에서 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부모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금융거래 증빙을 남겨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갚기만 하면 이자는 상관없을까?

그렇다면 갚기만 하면 이자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상관없을까?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 같은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의 적정 이자율을 정해 놓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다면 자녀는 적게 낸 이자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이자율을 정해놓고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과의 차이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부모한테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대출받은 날에 이자 금액의 차이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재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 시 세법상의 적정이자율은 4.6%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연 4.6%만큼에 해당되는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령,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3억 원에 4.6%해당하는 이자인 1,38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만약,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줬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부모에게 2% 이자로 빌렸다면 4.6%와의 차이인 2.6%(4.6%-2%)만큼의 이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이자금액이 1,000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이자나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모두 증여세를 내야 될까? 만약 그렇다면 증여세를 걷는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이나 납세자가 세금 신고하는 데 드는 납세협력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증여받은 이자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증여로 보는 이자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령, 김 씨가 2억 원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 준 경우, 무상으로 준 이자는 920만 원(2억 원×4.6%)이다. 이자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박 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면 이자금액은 1,380만 원(3억 원×4.6%)이다. 이자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으니 1,380만 원의 이자를 증여로 본다.

따라서 약 2억 1,0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도 원금은 반드시 상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금 자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다시 말해, 3억 원을 5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 대출받은 날에 1,38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그다음 1년이 지날 때마다 1,380만 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이때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증여세 Q&A

질문	답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증여'로 추정된다
자녀에게 상환할 능력이 있고, 빌려주었다는 증빙이 있다면?	'차입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 자녀간 차입거래 시 이자율은?	4.6%
무이자, 저금리로 빌려줬다면 증여로 보는 금액은?	4.6%와 실제 빌려준 이자금액 차이만큼 증여로 보아 과세된다. 빌려준 돈 x (4.6% - 실제 빌려준 이자율) = 증여로 보는 이자금액
무이자나 4.6%보다 저금리로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 되나?	증여로 보는 이자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다. 2억 1,000만 원 x 4.6% = 966만 원

쉬운 경제의 알찬 정보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India

인도에 간 한국광복군

인도 델리 레드 포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인도 영국군 총사령부(이하 영국군) 주둔지로 사용되던 곳이다. 우리에게 한국광복군 '인면전구 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 활동지로 의미가 크다. 인면(印緬)은 인도와 버마를 뜻하고 전구(戰區)는 전투지역을 말한다. 이를 이어 붙이면 인도 버마 전투지역에 파견된 공작대가 된다. 인도에 간 광복군, 좀 생소한 이야기지 않나. 그들은 누구였고 어떻게 인도까지 가게 된 걸까.

최정에 병력 선발

1942년 가을, 영국군은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과 접촉한다. 공작원파견이 논의된다. 이에 최성오, 주세민 등 두 명의 대원이 먼저 인도, 버마 전선에 파견된다. 아마도 그들의 성과가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다. 한 달 남짓한 그들의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더 많은 인원을 요청해온다. 이에 김원봉과 콜린 맥켄지 영국군사령관은 1943년 5월 '민족군선전연락대파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에 따라 민족혁명당과 영국군은 일본군 포로를 신문하고, 대적(對敵) 선무방송(심리전의 한 형태로 보통 군사작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작전 전후 실시하는 선전방송을 일컫는다)으로 적군을 회유하는 등의 특수전을 펼쳐나가기로 한다. 요즘으로 치면 심리전단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다. 한인 병력들은 일본인과 겉모습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일본어에 능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도 잘 무장돼 있었다. 일본군과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던 영국군에게겐 없어선 안 될 병력이었다.

협정 체결 이후 실제 공작대 파견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통해 이



1 인도 뉴델리의 레드 포트 전경

2 전망대에서 바라본 레드 포트 광장

3 대원들이 머물렀던 레드 포트의 빈 성터

뤄진다. 이때쯤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광복군을 지휘 통솔하던 중국군사위원회 또한 이 문제를 임시정부 내에서 처리해주길 원했다. 광복군 총사령부는 곧바로 공작대 선발에 나선다. 신체조건은 물론이고 일본어와 영어 등 어학능력이 뛰어난 최정에 대원이어야만 했다. 그렇게 공작대 대장에 한지성, 부대장에 문응국이 임명되고 김상준, 김성호, 나동규 등 총 9명이 1943년 8월 중국 충칭을 떠나 인도로 향한다. 그들은 델리 레드 포트와 콜카타등에서 1943년 연말까지 3개월간 선무방송, 전단지작성, 문서번역, 암호 해독 등을 체계적으로 훈련받는다.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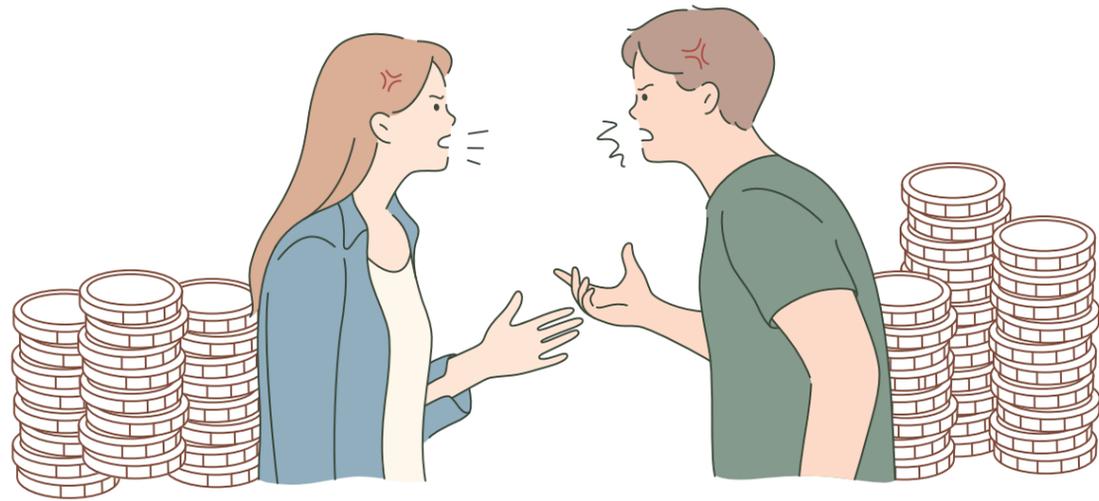
훈련을 마친 인면전구공작대는 인도 동쪽 끝 임팔(Impal) 전선에 투입돼 버마 탈환 작전 등에 참여한다. 임팔은 남쪽으로 방글라데시, 동쪽으로 버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마니푸르(Manipur) 주의 주도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제4군단 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특히 1944년 3월부터 7월까지 영국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밀고 밀리는 치열했던 '임팔대회전'의 최전선이기도 했다. 당시 공작대원 중 일부는 영국군 제17사단을 따라 버마 티딤(Teddim) 지역까지 진격해 들어간다. 그러자 일본군 33사단이 거세게 포위 공격을 퍼붓는다.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2개 연대를 동원했는데 그중 한 개 연대는 영국군의 배후를 차단하고, 다른 한 개 연대는 측면을 공격하는 고립 작전을 구사한다. 영국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악전고투하게 된다. 이때 인면전구공작대 문응국 부대장이 혜성처럼 등장한다. 그는 노획한 일본군작전 문서 등을 세밀히 판독하고, 포로신문 등을 통해 일본군 병력 배치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한다. 문 부대장의 분석대로라면 일본군 포위 병력은 예상보다 적어야 맞았다. 정보 분석 결과가 사단장에게 즉각 보고된다. 곧바로 철수 방향이 하달된다. 17사단은 조심스럽게 포위망을 뚫고 티딤에서 임팔까지 180km를 퇴각해 4월 2일 전원 무사 귀환한다. 이 직후 영국군사단장이 직접 문 부대장을 찾아 노고를 치하한다.



전장에서 찾은 명분

왜 임시정부는 그 먼 인도까지 광복군을 보냈던 걸까.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참전국 지위에 있다. 연합군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이를 인정받는 건, 전후 강대국들에게 자주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카드였다. 인면전구공작대는 참전국 지위의 강력한 명분이었다. 임시정부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독립에 필요한 일이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다. 인면전구공작대는 이런 노력의 산물인 셈이다. 

상속재산을 독점하기 위한 상담을 받을 때가 많다.
 오늘날에도 많이, 아들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형제가 이미 증여받은 사실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형제에게 빼앗긴 상속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나 몰래 형제가 받아간 부동산 되찾을 수 있을까?

상속개시 당시, 즉 부모님의 사망 당시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 수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 미리 등기를 이전 받으면 상속 재산 분쟁이 없을 줄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빼돌린 상속재산을 되찾아오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바로 상속회복청구라는 소송이다(민법 제999조).

민법에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다. “상속권이 침해당하여 침해당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황제 참칭 등 사극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참칭이란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규정은 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척 행세해서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② 공동상속인 중 하나가 자신의 실제 상속분보다 많은 상속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서 상속받아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

된 경우, 빼앗긴 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상속인으로 신뢰할만한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 주장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침해상속인이라 설명한다(대법원 90다카19470, 90다5740 사건).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여러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 형제 중 하나가 부동산을 따로 상속받았고 그 금전적 가치가 높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현금을 받아갔다면 금전지급청구를 할 수도 있다. 모두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민사소송이다.

10년 전 등기한 경우에도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

민법에는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민법 제999조 제2항). 법원은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그런데 위 규정만 보면 10년 전 부모님이 등기를 넘긴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방법이 있다. 우선 부동산 등이 이전된 이유가 ‘매매’나 ‘증여’인 경우다. 부동산등기부의 갑구(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변동 여부가 기재된 부분)에 증여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런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에는 위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7898사건 등). 상속을 이유로 등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실제 매매나 증여가 없었음에도 마치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 이전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기에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거짓으로 합유 등기를 하고, 합유자의 사망에 따라 합유지분이 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합유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법원에선 이런 형태의 소송은 상속받은 ‘소유권’을 근거로 한 소송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시효 소멸하지도 않아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80다2968 사건 등). 다만, 상대방이 상속받은 소유권의 범위(즉, 공유지분의 범위)만큼은 되찾아올 수 없다(대법원 2014다49425

사건). 그리고 제3자가 그 재산을 넘겨받았다면 그 제3자가 거짓 증여라는 사실을 알지 않는 한 대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유류분 반환으로 재산 회복하기

만약 상속개시 후 자신의 유류분(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그 외는 1/3)조차 받을 수 없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도 있다. 본래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에서 사망하기 1년 전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시킨 재산이다. 즉, 피상속의 재산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유류분만큼 반환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민법 제1114조 1문). 물론 1년 전 증여한 것만 되찾아올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민법에는 증여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유류분권자에 손해를 입힐 것을 알았다면 사망시점으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도 반환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민법 제1114조 2문).

共同相續人

TIP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의 유류분반환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공동상속인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모두 반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95다17885 사건). 즉, 자기 상속분의 절반 이상을 얻지 못했다면 아무리 오래전 숨겨둔 부동산이 있어도 유류분만큼은 되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이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증여를 받을 당시 적어도 상속재산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고, 장래 상속개시 때까지 재산 증가가 없으리란 점을 예견’하고 증여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2010다50809 사건).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부모님의 사망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민법 제1117조).

알아두면 유익한 사학연금

-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Q&A -

공단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에 의거 교직원이 재직 중에 화재·홍수 등으로 주택에 재해를 입었거나, 배우자(본인)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부조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 제4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의 2]



재난부조금

Q1. 재난부조금은 무엇이며 얼마나 지급되나요?

-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주택의 피해 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3.9배를 지급합니다.

Q2. 부모님 소유주택이 화재로 파손되었는데 재난부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고,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피해주택주소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Q3.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실면적은 적으나,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재난부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화재로 인한 소실이 아파트 면적의 1/3 이상일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실면적이 1/3 이하이며, 아파트 실내가 파손되지 않고 단순 그을음만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망조위금

Q1. 사망조위금은 무엇이며 얼마나 지급되나요?

- 사망조위금은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교직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교직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지급(단,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0~160%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그 외(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대상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를 지급합니다.

Q2. 계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조위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계부모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동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에 의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직계존속은 민법상 '직계혈족'의 범위에 속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모는 민법에서 인척에 불과할 뿐, '직계혈족'으로서 친족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3.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혼인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교직원과의 혼인 전·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단, 개인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늦게 한 경우 결혼 날짜와 관련된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예) 2020. 12. 1. 결혼식 진행 → 2021. 3. 5. 배우자의 부 사망 → 2021. 8. 19. 혼인신고인 경우, 결혼식 날짜(2020. 12. 1.)가 인쇄된 청첩장으로 서류 대체

Q4.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가족 중 2인 이상인 경우, 사망조위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사망 후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중복신청할 경우,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첫째 자녀가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둘째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였다면 첫째 자녀보다 나이는 어려도 지급의 우선순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문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친생부모의 사망으로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도 선택서류를 최소 3종 이상 제출해야 하나요?

- '소송' 및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부모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택서류가 없어도 사망조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사망조위금 청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는 재해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년(명예)퇴직 교직원 등의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

1. 사전청구 대상

2021년 8월 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등 퇴직예정 교직원**

※ **외국인 교직원**의 경우 퇴직급여 사전청구 상시 가능

2. 사전청구 구비서류(우편 청구)

퇴직급여청구서(서식 201호 또는 202호), (정년·명예)퇴직 예정 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

▶ 급여청구서에 **퇴직 예정일**과 **퇴직 사유**를 '정년', '명예', '일반' 퇴직으로 정확히 표기

3. 청구기간 : 2021. 8. 9. (월) ~ 8. 20. (금) 예정

청구방법	절차
인터넷 청구	홈페이지(www.tp.or.kr)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퇴직급여신청등록 ▶ 본인인증 ▶ 공단접수 ▶ 급여 심사 및 지급 *타 퇴직소득(명예퇴직수당 등),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 희망 시 증빙서류 첨부
팩스 청구	퇴직급여청구서 작성 ▶ 팩스 발송 ▶ 공단접수 ▶ 본인 청구사실 확인(유선전화) ▶ 급여 심사 및 지급
공문 청구	퇴직급여청구서 작성 ▶ 전자문서 발송(학교기관) ▶ 공단접수 ▶ 급여 심사 및 지급
우편 청구	퇴직급여청구서 작성 ▶ 우편 발송 ▶ 공단접수 ▶ 급여 심사 및 지급

※ 우편 접수 시 해당 서류가 공단에 도착할 때까지 빠른 대기 기준 약 2~3일 정도 소요되어 인터넷 접수보다 급여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접수 및 문의 안내

주소 : (538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회관 7층 급여팀

관련문의 : 연금dream 콜센터 ☎(국번없이) 1588-4110

지역별 팩스번호 ▶ 서울 02-2070-1124 ▶ 경기·강원 02-2070-3323 ▶ 대전·충청 02-2070-3324
▶ 대구·경북 02-2070-3325 ▶ 부산·경남 02-2070-3326 ▶ 호남·제주 02-2070-3327

5. 안내사항

- 1 사전청구기간 중에는 퇴직일 전에도 퇴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 2 구비서류, 기재사항 등의 미비 시 급여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3 지급받고자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계좌는 해당 금융기관 중 본인 실명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단, MMF, 신탁통장, 휴먼계좌 등은 사용 불가)
- 4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은 다음 사항을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 의거 명예퇴직급여를 지급받고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는 '명예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해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에는 교직원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차기년도 5월)에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5 급여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 이용 시 IE(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셔야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l e g a l c o u n s e l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상담대상

사학연금법을 적용 받고 있는 사립학교 재직교직원 및 사학연금 수급자

상담범위

일반채권채무, 부동산 및 주택임대차, 가사/상속, 교통, 근로, 행정조세, 형사, 연금 등

상담방법

방문 또는 전화 상담

법률상담 업체 안내

지역	담당변호사(소속)	주소	상담연락처
서울	최민령 법무법인 에스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번지 도원빌딩 9층	(02)565-9881
경기, 인천, 강원	최중섭 법무법인 효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	(031)211-1234
대전, 충남, 충북	김형배 김형배 법률사무소	대전시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변호사회관) 806호	(042)482-1933
대구, 경북	김섭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동구대로 358-6 (범어동 성광빌딩) 406호	(053)755-7510
부산, 울산, 경남	강영수 법무법인 국제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28	(051)242-9908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김정현 법무법인 지드림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213-1 2층	(062)222-0550

E V E N T



8월호 웹진 이벤트

알쏭달쏭 □□□□
빈칸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웹진으로 편리하고 재미있게 월간 <사학연금>을 보셨다면 웹진 이벤트에도 참여해주세요. 이벤트 참여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 2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웹진 접속 후 독자 이벤트에서 참여 가능
참여기한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사학연금공단 QR코드 안내



웹진



유튜브



알림톡



블로그

알림톡 친구 추가 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사학연금> 독자 참여

코너명	코너 소개	필수 사항	독자 선물
행복 만남 (인터뷰 코너)	월별 테마에 맞는 주인공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9월호 테마 '미디어, 영상으로 만드는 세상'	테마에 맞는 인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사연 8월 10일 마감	캐리커처 상패
취미의 발견 (선물 이벤트)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싶은 사학가족 10명을 선정해 'DIY 키트'를 선물합니다.	신청 사연 또는 동기/인적사항 표기 필수 8월 15일 마감	DIY 키트
TP 백일장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시 또는 수필 ※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이라도 무관	한글 및 워드 파일 형태로 A4 용지 1.5매(10포인트 기준) 내외 8월 11일 마감	모바일상품권 (5만 원)
사학 독후감	문화 살롱, 역사 탐구, 생활 법률 등의 칼럼을 읽은 사학가족의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메일 또는 우편접수	모바일상품권 (2만 원)
공단 바라기	공단에 바라는 제안 및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메일 또는 우편접수	모바일상품권 (2만 원)

응모·투고방법 메일 magazine@tp.or.kr 우편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 홍보실

※ 당첨 시 상품 받으실 성함, 주소,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 상품권 발송일: 해당 월(기고 글이 게재된 달) 발행 후 10일 이내로 발송됩니다.



모바일상품권

문자로 전송되며 바코드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Paradise Hotel Busan Special Promotion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부산 특급 호텔 중 유일하게 해운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발코니를 갖춘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해운대의 랜드마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총 532실의 객실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구비하여 럭셔리&힐링 엔터테인먼트로 새로운 경험의 가치를 제공드립니다.



구분	일~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Deluxe City	199,650	266,200	338,800
Deluxe Ocean	242,000	302,500	387,200
Deluxe Ocean Terrace	266,200	350,900	435,600

• 상기요금은 봉사료 및 세금 21%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상품의 객실 이용 기준은 성인 2인+어린이 2인 또는 성인 3인 기준입니다.
• 제외 기간: 여름 성수기 7/16-8/31, 연말연시 12/24-25, 12/31 • 상기 요금에 60,500원 추가 시 2인 조식이 제공됩니다. (사전 예약 한정)

특전

조식 현장 특별가 제공 (조식 불포함 예약 시) 성인 1인 42,000원 / 어린이 1인 29,000원
야외 온천 '씨메르' / 야외오션풀 /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1박 1회)
BMW Driving Zone* / HABA 키즈존 / 웅진북클럽 / Play Lab **무료 이용**

*5~7세 유아 도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 체크인 시간 15:00 & 체크아웃 시간 11:30
• 전화 051-749-2111 또는 E-mail: res@paradisehotel.co.kr
예약 및 취소가능

• 취소 위약금 안내
체크인 2일 전 오후 6시 전까지 예약 취소 ▶ 무료 취소 가능
체크인 1일 전 18시 이전까지 예약 취소 ▶ 1박분의 50% 요금부과
체크인 1일 전 18시 이후 취소 또는 No Show ▶ 1박 요금 부과

객실예약 051-749-2111~3

www.busanparadisehotel.co.kr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